



“여러분도 엠마오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평화롭고 행복했던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걱정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아무 걱정거리도 없었던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지금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된 나 자신을 원망하면서 미워하게도 되지요.

아마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으로 엠마오로 향해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처지에 놓인 제자들과 동행해 주시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들이 겪었던 아픈 기억을 성경 말씀을 들어서 풀이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다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그분의 사랑을 나누어 받고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습니다. 그리고 큰 실망, 커다란 슬픔에서 벗어나 기뻐하며 새로워졌습니다. 과거로의 여행을 포기하고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이처럼 부활은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면 지금 새로워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미움에서 사랑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새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있는 상황이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그리워하며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일을, 자꾸 생각하는 것은, 나를 더욱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여행을 떠나게 하심으로써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다시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일들에 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미래를 희망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과 함께 여행을 떠나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활 대축일 후에 엠마오로 가는 여행을 가졌습니다.

주변의 가까운 곳을 찾아 산책도 하고 소풍도 즐기면서 부활의 기쁨을 새롭게 되새겼는데 이는 엠마오로 떠나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엠마오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모든 강박에서 벗어나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 답답했던 것, 걱정스럽던 것을 활짝 펼쳐놓고 하느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보세요.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어보세요. 분명히 모든 것이 다시 사랑스럽게 변화되고 힘들기만 했던 삶이 새로워져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참된 기쁜 소식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현우 요한 신부 | 하청본당 주임

주일 진례

제 1 독 서	사도 2,14,22-33
화 답 송	◎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제 2 독 서	1베드 1,17-21
복 음	루카 24,13-35



마산교구 전사前史 재수록

마산교구 전사前史 12

낙동강과 피난 교우촌(1)

황강은 합천군 청덕면 적포리赤布里에서 낙동강을 만나 흡수된다. 적포의 옛날 이름은 난비 마을이다. 남쪽 벼랑(절벽)이 심한 마을이란 뜻이다. 황강이 더해져 풍성해진 낙동강은 마을 아래쪽 산 밑을 치면서 흘러간다. 자연스레 강물 위로 절벽이 생겼고 십 리가량 뻗어있다. 그래서 생긴 말이라고 한다. 지금은 절벽 위로 버스가 다니는 도로가 나 있다.

강을 건너면 창녕 땅이다. 옛날부터 배를 타고 건넜고 현창玄倉나루라 했다. 현창은 창녕 쪽 나루터가 있는 마을 이름이다. 창녕 쪽에서 많이 이용했기에 이렇게 불렸다. 지금은 다리가 놓여있다. 적포 마을에 놓인 것이 아니고 훨씬 남쪽의 양진리仰津里 마을에 놓여있다. 이곳에선 창녕군 이방면梨房面과 연결되고 의령군 낙서면落西面과 가깝다. 적포 마을과는 연관이 없지만 여전히 적포교赤布橋 또는 적교 다리라 부르고 있다.

황강을 따라왔던 마지막 교우들은 이곳에서 흩어진다. 의령 쪽으로 갔거나 강 건너 창녕 쪽으로 들어갔다. 일부는 낙동강을 따라가다 함안과 진영지역 교우촌에 흡수되었다. 창녕 땅은 경북 달성군과 청도군을 경계로 한다. 낙동강도 현풍을 지나면 창녕으로 흘러든다. 경북 청도 쪽에서 강을 찾아 나선 피난 교우들이 창녕지역에 머물렀음은 상상할 수 있다. 실제로 그들은 잠시나마 창녕 땅에서 교우촌을 이루며 살았다.

청도지역엔 일찍부터 교우들이 모여들었다. 대구 팔공산 일대와 영천과 경산지역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피난 교우들이다. 로베르(김보록) 신부의 1883년 교세통계표에 의하면 청도 인근에 구룡九龍공소가 있었는데 신자 수 60명 예비자 10명으로 보고되어 있다. 당시로선 대단히 큰 공소였음을 알 수 있다.

청도에서 낙동강으로 가려면 창녕군 대합면大合面을 지나야 한다. 이 길은 유명한 우포늪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 우포늪을 지나면 바로 현창 나루가 나오고 낙동강 건너 의령군과 함안 쪽으로 연결된다. 우포늪이 대합면에 물리는 이 인근에 교우촌이 있었다. 대합면 주매리主梅里에 있었다는 모래늪(砂旨)공소다.

지금은 공소의 흔적도 신자들이 있었다는 증언도 찾을 수 없다. 기록에만 나올 뿐이다. 명례본당에 거주하던 강성삼姜聖參 신부가 남긴 1902년 교세통계표다. 1901년 판공성사를 위해 창녕지역 두 공소를 방문하고 기록을 남긴 것이다. 대합면 모래늪공소와 길곡면吉谷面에 있었던 시름(曾山里)공소다. 교우들은 이전부터 어떤 교우 집에 모였을 것이다. 판공 때 그곳을 방문한 강 신부는 동네 이름을 공소 이름으로 보고한 것이다.

이들은 어디서 왔을까? 모래늪공소는 청도 쪽에서 온 교우들 중심이었고 시름공소는 황강 따라 내려온 교우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래 머물지 못했다. 나이 든 교우들은 남았지만 젊은 교우들은 더 나은 곳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숫자가 줄자 교우들 모임도 줄었고 결국은 사라졌다. 시름공소의 경우 신자 수 22명이었고 판공성사 본 사람은 6명으로 보고되어 있다. 보고 당시에 16명은 교적만 있고 사람은 없었던 것이다.

강성삼 신부는 명례에서 1903년 선종한다. 이후 본당은 공소가 되었고 마산포(완월동)본당 관할이 되었다. 창녕지역 공소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피난 교우들의 흔적은 결실을 맺는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공소가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의 창녕읍 신촌리에 있었던 고리실(環谷)공소와 남지읍 북쪽에 있었던 수개樹介公소다. 두 공소는 함안과 문산지역 공소들과 유대를 맺으며 최근까지 활발했었다. 고리실공소는 훗날 창녕본당 설립의 계기가 된다.

가음동성당을 당초 약속대로 신축해 주십시오.

창원공단 조성시 만들어진 최초 성당입니다.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재건축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가음4구역 주민들을 위해 자리를 옮겨드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당신축을 약속했기에 재건축에 동의했습니다.

=신의를 지킬거라 믿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감정평가 보상액 5.2억원 으로 성당 신축은 불가합니다.

=최소 공사비 76.8억이 필요합니다.

지하 2층 규모의 주차공간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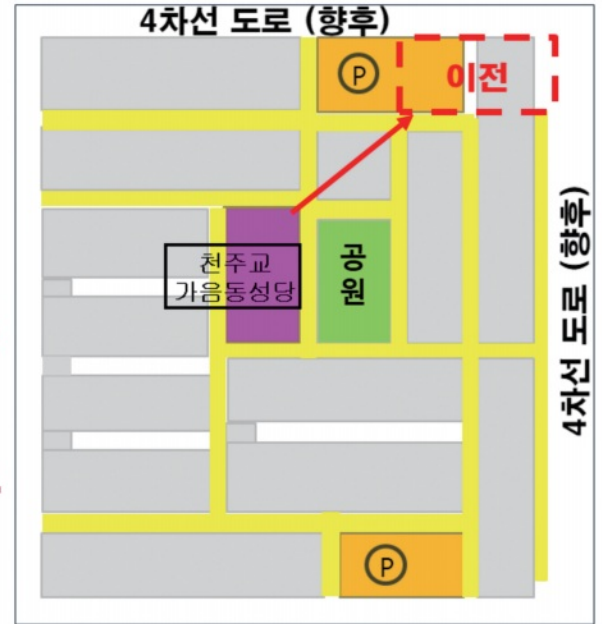
=성당건립 선결과제이며 존립 필수조건입니다

공공기관 신축공사 기준으로 현 면적 (384평)에 대한 객관적 공사비를 산출 했습니다.

=지상건물 39.3억/지하주차장 28.2억/인테리어 5.3억/설계감리비 4.0억 계 : 76.8억

이주비, 임대비 포함 적정한 보상이 없으면 이전할 수 없습니다.

=현 건물에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창원 가음동성당, 재건축 조합과 성당 이전 협상 진통

가음동성당(주임: 이창섭 아우구스티노 신부)은 창원공단 조성 시, 최초로 지어진 역사적인 성당입니다. 창원시 가음4구역 재건축 조합과 신축이전 합의 후(2017년 5월), 재건축 조합은 최초의 합의사항을 뒤집고, 건물 보상액으로 턱없이 부족한 감정 보상액 5억 2천만 원을 성당 이전 보상액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성당 측이 5억 2천만 원으로는 성당 신축이 불가능함을 통보하자, 재건축 조합은 법원에 성당과 건물을 조합 측에 매도하라는 청구 소송(2023년 3월)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가음동성당은 이에 반발하여 법적 소송 대응과 창원시에 집단 민원 청구 및 집회 등으로 대응하는 중입니다.

공공기관 신축공사 기준으로 현 면적(384평)에 대한 객관적 공사비는 지상건물 39억 3천만 원, 지하주차장 28억 2천만 원, 인테리어 5억 3천만 원, 설계 감리비 4억 원으로 총 76억 8천만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가음동성당은 이주비, 임대비 포함 적정한 보상이 없으면 이전할 수 없습니다.

교구 신자분들의 관심과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음동본당 신자들의 묵주기도를 겸한 평화행렬

창원한마음병원, 창원이주민센터와 업무 협약식 및 1천만 원 후원금 전달



교구이주사목위원회 창원이주민센터(센터장: 윤종두 요한 신부)와 창원한마음병원은 3월 28일 한마음병원 대회의실에서 신은근 바오로 신부(교구장 서리)와 하충식 박사(한마음병원 이사장) 외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두 기관은 '인류애의 실현'이라는 공통 가치에 마음을 모으고,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마음병원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들에게 의료비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창원이

주민센터는 현재 국립마산의료원, 창원파티마병원과도 협약을 맺어 외국인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있다. 더불어 창원한마음병원 노사협의회가 2022년 연말 자선바자회를 열어 마련한 모금액 1천만 원을 창원이주민센터에 후원해 주었다. 후원금 전달식에는 윤종두 신부가 참석하여 "우리 이웃은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한국 사회에 정착해 생활하는 모두를 뜻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리며, 노사협의회의 첫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소중한 후원금은 외국인주민의 의료복지와 교육에 사용될 것이다."라고 전하였다.

회원동본당 천주의 성모 Pr. 2,000차 기념 주회



회원동본당(주임: 하춘수 레오 신부) 신약의 성모 Cu. 소속 천주의 성모 Pr.(단장: 손금자 루시아)은 3월 31일 2,000차 기념 주회를 가졌다. 천주의 성모 Pr.은 1983년 10월 12일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여성 단원 7명이 활동하고 있다. 천주의 성모 Pr. 단원들은 본당 주임 신부와 본당 레지오 단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주회 및 축하식을 갖고 뜨거운 열정으로 3,000차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하였다.

주교회의, 『미사 전례 독서와 묵상』 총 5권 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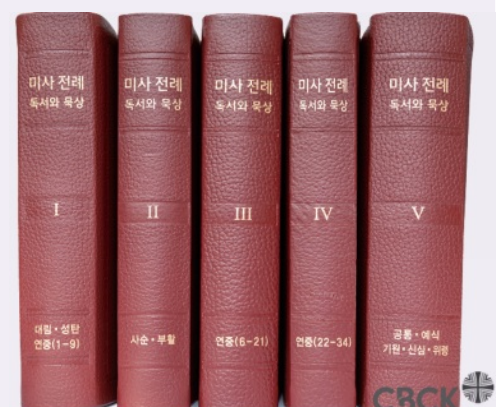
- 신자들을 위한 휴대용 미사 전례서 -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이용훈 주교)는 2016년 추계 정기 총회에서, 신자들의 영적 선익을 위하여 『미사 전례 독서와 묵상』을 발행하기로 하고, 2020년 9월 25일 제1권을 발행한 데 이어, 2022년 제2권, 제3권, 제5권 그리고 2023년 1월 20일 제4권을 발행함으로써 총 5권을 완간하였다.

『미사 전례 독서와 묵상』의 편찬을 맡은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장신호 주교)는 모든 신자가 말씀을 더 가까이 만나고 더욱 경건하고 능동적으로 미사 전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7년에 발행된 『로마 미사 경본』과 『미사 독서』를 한데 엮을 것을 기획하였다. 이를 위해 Messale dell'Assemblea Cristiana, Compostella, COLLINS (The Weekday Missal/The Sunday Missal), Missale Romanum cum Lectionibus를 참고하였으며, 총 5권을 편찬하였다.

휴대와 사용이 편리하도록 전례 시기에 따라 제1권에는 대림 시기·성탄 시기·연중 시기 제1-9주간, 제2권에는 사순 시기·부활 시기, 제3권에는 연중 시기 제6-21주간, 제4권에는 연중 시기 제22-34주간, 제5권에는 공통·예식·기원·신심·위령 미사의 전례문과 독서가 수록되어 있다. 제1권(2020.09.25.) 발행 후, 제2권(2022.08.01.) 제3권(2022.08.01.)을 발행하고, 모든 시기에 공통으로 쓰이는 제5권(2022.09.01.)을 제4권(2023.01.20.)보다 먼저 발행하였다.

『미사 전례 독서와 묵상』은 현재 발행하고 있는 『성무일도』와 같은 크기(46판 변형, 110×178mm)로 하여 전례서로서 외형적 통일성을 유지하려고 하였으며, 견고한 가죽 재질로 제작하였다.



아들과 스페인

백남오 시몬베드로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스페인인 유럽의 시작이자 종착점이다. 지중해와 닿아있고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와 접해 있다. 지구의 반대편에 해당하는 머나먼 곳이다. 12월 31일 오전 11시, 인천공항에서 13시간 이상이나 날아서 마드리드 공항에 내렸는데 그곳은 붉은 노을빛이 물들고 있었다. 이번 여행은 대학시절 학보사에서 만난 <한솔모임>과 함께했다. 아내가 무릎 수술을 하여 먼 길을 떠날 수가 없어 아들 승일이가 대신하게 되었다. 참 다행이 아닌가 싶다.

바르셀로나 인근의 몬세라트는 산세가 웅대 수려하고 베네딕투스 수도원이 있는 성지였다. 산 중턱 해발 7백 지점의 깎아지른 바위 사이에 지어진 이 수도원은 카탈루냐 사람들의 수호성인 검은 성모상이 모셔져 있었다. 성 루카가 만들고, 성 베드로가 이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아랍인들에게 강탈당할 것을 염려해 동굴 깊숙이 숨겨 두었는데, 8백30년이 지나서 이곳 목동들에게 빛과 함께 천상의 음악이 들리며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옮기려 했으나 꿈쩍도 하지 않아 이곳에 성당을 세웠다고 한다. 수도원 대성당 제단 2층에 자리하고 있는 이 성모상은 오른손에 공을 들고 있으며, 공은 오픈되어 있었다. 이 치유와 기적의 마리아를 보기 위해 세계의 순례자들이 끊이지 않고 긴 행렬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가이드는 설명을 끝내며 시간상 밑에서 바라만 보라고 했다. 하지만 아들은 재빨리 나의 손을 잡고 2층으로 이끌었다. 이미 성모상을 보기 위해 긴 줄이 끝도 없이 이어진 상태였다. 나는 놀라면서도 조용히 아들 뒤를 따랐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과연 성모상을 만져볼 수가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시계만 바라볼 뿐이었다. “아부지,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 걱정 마시고 내 따라오이소. 시간은 충분합니다. 나는 기념품 가게에서 검은 성모상도 하나 살 겁니다.” 하며 여유까지 부리는 것이 아닌가. 그랬다. 승일이가 맞았다. 나는 그렇게 아들의 용기 덕분에 나무로 만들어진 검은 성모님을 친견하는 감격을 맞이했다.

내가 아들에게 바라는 소망이 크지는 않다. 평범한 세상 부모들의 기대와 다를 바 없다. 이 험한 세상에 슬기롭게 살아남아야 한다.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뒤쳐져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생활도 하며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웃의 아픔까지도 살필 수 있는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은 없다. 이게 전부다. 그 정도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그렇게 다그치며 온 힘을 다하여 전쟁이라도 치르듯이 교육을 시켜 온 것이다. 한때는 자식에 대한 욕망은 멈출 수도 없어 설령 고시에 합격했을지라도 그 이상의 것을 바랐을 것이다. 지금은 자동차 관련 조그만 사업장 하나 운영하고 있다.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폭풍우가 휘몰아쳤음은 물론이다. 좋아하는 것을 일로 연결해 낸 능력을 장하게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서정이, 성현이 아비가 되어준 것이 고맙다. 아들이 다하지 못한 것은 손자가 또 메워 갈 것이라 믿는다. 아들과 멋진 스페인 여행의 추억을 잊지 못할 것이다.



견진성사

일시: 4월 30일(주일)
장소: 금산성당
집전: 교구장 서리 신은근(바오로) 신부

교구/본당

교구 성경교육봉사자 모임

일시: 4월 25일(화) 10:00
장소: 교구청

교구 전례꽃꽂이회 피정

일시: 4월 27일(목) 10:30~15:30
장소: 진례성당
준비물: 묵주, 운동화, 성지를 위한 특별헌금
문의: 교구 전례꽃꽂이회장 010·4848·5281

장례지도사 3차 교육

일시: 4월 28일(금)~30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청년 신앙강좌

일시: 4월 30일(주일)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마산장애인복지관 작품전시회 '나의 나뭇'

일시: 5월 2일(화)까지

장소: 롯데백화점 마산점 더 갤러리
(지하 2층 영풍문고 내)
주최: 마산장애인복지시설현을위한연합회
문의: 마산장애인복지관 070·8798·4807
▶ 무료 관람이니 많이 와서 봐주세요.

217차 ME주말 안내

일시: 5월 19일(금) 19:00~21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신청: 전화 및 문자로 신청(문자 발송- 부부 이름
과 연락처, 본당 기재)
문의: 배길우(바오로) 010·2057·3319
안은정(바울리나) 010·4598·7530

도박문제로 힘드시니까?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매(주일) 17:0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010·9992·3443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중독),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통영시 보건소 옆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1층)
카페: cafe.daum.net/6407795/ 인스타: tygapok
문의: 055·640·7795/ ★일시보호쉼터 운영
▶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 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www.holyfcac.or.kr

재속맨발가르멜회 마산가르멜산 성모공동체 회원 모집

일시: 모임-5월 22일(월) 10:00
장소: 진동 가르멜 수도원
대상: 만 55세 미만 신자
문의: 담당자 010·3191·8315

재속 프란치스코회 영성특강 안내

일시: 매월 2주 토요일 11:00~13:00
장소: 칠암동성당
대상: 누구나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4월 24일(월) 19:00	중앙동성당	성령세미나-제5강 성령 세례 안수	맹진학 라파엘 신부(부산교구 영성익집 부원장)		010·5247·9900
청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20:00 기도회(1주: 미사, 3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회		최정열 신부 010·4055·5047/ kmsvocation7526@gmail.com		해외 선교 사제를 꿈꾸는 청년

대성의전 경남장묘컨설팅
산소 이장·무연고·장의 120만원
010-4848-9944
마산회원구 화성남 18길 2, 1층(화성동)
김종운(클레멘스)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힐데갈드 화장품
이 화장품은 수녀들이 친환경으로 제배한 허브로 직접 만듭니다



힐데 로션 100ml, 힐데 크림 200g, 힐데 스킨 100ml, 힐데 비누 60g, 힐데 샴푸 400ml, 힐데 크림 150ml, 힐데 크림 150ml

롯데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문의 **010-5117-1160**
0502-700-1140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영로 489(팔용동)
구자룡 할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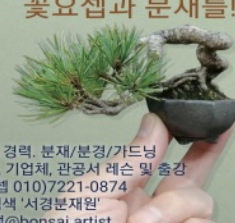
■일본 홋카이도 순례 8월 16일 출발
3박 4일-209만원

■나가사키 순례 10월 16일/ 11월 6일/
12월 4일 출발 3박 4일-125만원

■이집트 완벽일주(성서학자 동행)
11월 1일 출발 14박 15일-650만원

bora (주)보나투어 02)732-4578
www.bonatour.co.kr

꽃요섭과 분재를!



40년 분재 경력. 분재/분경/가드닝
개인, 그룹, 기업체, 관공서 레슨 및 출강
상담 꽃요섭 010)7221-0874
NAVER 검색 '서경분재원'
인스타그램@bonsai.artist

주제: 프란치스코의 경제
강사: 김일득 모이세 신부(ofm)
주관: 재속 프란치스코회 경남지구
문의: 봉사자 010·5230·1420, 010·8782·9520

재속 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모집: 5월 31일(수)까지
대상: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적 삶과 형제적 사랑을 살고자 하는 만 18세~55세 가톨릭 신자
과정: 지원기 (1년)교육 이수후 입회
문의: 재속 프란치스코회 경남지구 봉사자 010·5230·1420, 010·8782·9520

재속 프란치스코회 유프라(청년) 모집

모집: 6월 30일(금)까지
대상: 신자 및 비신자 중 아씨의 성프란치스코처럼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만 18세~35세 미만 미혼 남, 여 젊은이
문의: 재속 프란치스코회 경남지구청년(유프라) 담당 010·4559·5134

나자렛 예수 수녀회 피정

피정: 개인 피정 및 전례 피정
장소: 본원 피정의 집
(경남 창원군 성산면 운봉길 25-12)
문의: 010·4686·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위치: 창원시 북면 감계/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문의: 010·3551·2038

나자렛소규모요양센터

대상: 장기요양(시설)등급을 받으신 어르신(1~2등급/3~5등급)
주소: 경남 창원군 성산면 운봉길 25-12
문의: 055·532·7811



함안나이의집 입소 안내(노인요양공동생활 시설)

대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1~4등급 자 어르신 중 시설급여 대상자(3, 4등급 자는 불가피한 사유나 치매 등으로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주소: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함의로 944번지 (대산성당 내)
문의: 055·582·0252, 010·2674·6174(정 세레나)

파랑포안나의집(장기요양시설)에서 입소어르신을 모집합니다.

대상: 장기요양 1~3시설등급(여자어르신)
주소: 거제시 팔랑포2길52(옥포동)
문의: 055·687·4890, 010·8526·6079



마산장애인복지관 제43회 장애인의 날 공동체 영화상영 '복지식당' 관람 안내

일시: 4월 26일(수) 15:00
장소: 메가박스 마산점
(마산합포구 유로스퀘어 6층)
대상: 창원 시민 120명
문의 및 신청: 마산장애인복지관 055·247·5194~7, 010·8892·1391

영화소개: 사고로 장애인이 된 청년 '재기'는 홀로 거동조차 힘든 중증에도 불구하고, 경증의 장애 등급을 받아 힘겨운 싸움 중이다. '재기'는 세상에 자신이 중증 장애인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세상의 문턱 앞에 선 '재기'를 만난다.



말씀과 찬양 페스티벌

일시: 5월 1일(월) 09:30~17:00
장소: 부산주교좌 중앙성당
강사: 장재봉 신부, 김경희 수녀
파견미사: 장재봉 신부
찬양 출연자(4팀):

- 갯등중창단 OB (12인조 신부)
 - 고영민, 손현희 찬양선교사
 - 김정식, 손봉섭 듀오 메타노이아
 - 신상옥 단장
- 주최: 성모올타리 공동체



제17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사무처 홍보부(51796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헌로 72)
- 마 감: 9월 27일(수)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레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구원의 잔, 고난의 잔

그리스도의 성혈 흠숭 수녀회

부활 시기를 보내며 저희 수녀회의 고유 찬미가를 흥얼거리며 지냈습니다. “너희 만백성아, 손뼉을 쳐라. 기쁜 소리 드높이 하느님께 환호하라.” 일 년 전례 시기 중 부활 시기는 참으로 기쁘고 신이 납니다. 계절도 좋고 만물이 소생합니다. 더구나 오늘의 복음은 성화 ‘엠마오로 가는 길’의 소재가 되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성화를 보면 반복되는 생활의 답답함이 시원하게 해소되는 듯한 호젓한 오솔길, 거기다가 예수님까지 함께 계시니 행복 느낌 가득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화입니다. 그런데 기쁨에 취해 있던 저에게 오늘 복음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굳느냐?”(루카 24,25)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것이 정녕 무엇이건데 제자들이 그리 믿기 어려웠을까를 찾아내는 데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다음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루카 24,26) 그 구절을 접할 때 즉각적으로 제 마음이 외쳤던 소리는 이렇습니다. “아니, 아니예요. 고난은 아니됩니다. 그냥 영광 속에 들어가십시오.” 제가 외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수난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가 외쳤던 소리입니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마태 16,22)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까지 불리며 꾸중을 들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매우 온유하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이 범하고 있던 오류를 확실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친절하시게도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과연 그 설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복음에서는 그것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명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서 그분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영광은 고난이란 개념과는 도저히 부합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 영광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는 고난과 관련을 짓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영광을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 우리는 천국을 바라며, 진학이나 취업에서는 합격을 바라고, 생활에서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바라고, 가족이나 친구관계에서는 화목을 바라고, 사회 안에서는 정의와 평화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든 우리가 바라는 영광,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 하고 그 고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오늘 복음에서는 우리를 다시금 일깨웁니다. 현재 여러분의 생활 안에서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고난을 밀어내지 않아야 한다고 오늘 복음은 가르쳐 주십니다. 흠 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해방된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구원의 잔을 마시며,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잔도 마셔야 하겠습니다.